

## 전문건설업체 부도위험 예측 정밀해진다

기사입력 2012-04-04 19:13:47 |

폰트  

### 정책연, 연내 전문 특성 고려한 새 모형 개발

전문건설업체의 부도 위험을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이 연내 개발될 전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전문건설업체 부도예측 모형에 관한 연구'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의뢰 아래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재무지표에 편중된 기존 신용평가사들의 모델은 물론 전문조합이 운영 중인 기존의 부도예측 모델도 전문건설업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확도도 떨어진다는 게 이번 연구 착수의 배경이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굵직한 전문건설사 부도가 잇따르고 있는 탓에 전문조합의 손실 우려가 급증한 점도 한몫했다.

연구원은 통상적인 재무지표를 보완하는 동시에 비재무지표에 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비재무지표로는 공사수주 잔량, 원도급자 규모 및 안정성, 저가 하도급공사 수주 여부, 직원수 및 인력 현황, 등록업종 수, 시공능력평가액, 기업연령, 하도급공사 운영현장 수, 은행대출 유무, 회사채 발행 여부, 협력사 등록 여부, 건설경기, 건설 및 부동산 관련 제도 발표, 벌점 및 업무정지 이력, 기술자 및 기능인력 보유 현황, 그리고 이런 비재무 변수간의 복합적 영향까지 포괄했다.

부도위험이 낮은 유형은 수주잔량, 직원 및 인력 수, 등록업종 수, 시공능력평가액, 기업연령, 운영현장, 은행대출, 회사채 발행, 협력사 등록, 기술자 및 기능인력 등은 많을수록 견실한 업체로 볼 수 있고 저하하도급공사와 벌점 및 업무정지 이력은 적을수록 부도 위험이 낮다는 게 연구원의 판단이다.

박광배 책임연구원은 "작년 1차 연구를 통해 기본적 평가요소를 선별했고 올해는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모형을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일반 제조업과 차별화되는 건설업, 특히 전문건설업 특성에 맞는 최적의 모형이 만들어지는 대로 전문조합 주도의 별도 검토를 거쳐 실제 전문건설사의 부도위험 예측과 보증 등의 운용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국진기자 jinny@